

詔使와의 次韻詩에 나타난 芝峯의 意識

-지봉의 「皇華集次韻」을 통해-

김 원 준*

< 목 차 >

- I. 序論
- II. 儀禮的 次韻에 담긴 尊明
- III. 遺墟地에서의 歷史認識
- IV. 脫俗과 遊仙의 意趣
- V. 小結

<Abstract>

A study on Zi Bong's world of consciousness in
Hwanghwazipchaun

Kim, Won-jun

Zi Bong's world of consciousness in *Hwanghwazipchaun*(皇華集次韻) in two volumes is examined. *Hwanghwazipchaun* is a compiled book of reciprocating and reciting poems with Chinese envoys, when receiving them. His world of consciousness is divided into a consciousness of ceremonial rhyme-borrowing, that of Yuheozi, and that of unworldliness and a Taoist hermit free from worldly cares.

The poetic quality in ceremonial rhyme-borrowing is mainly a complimentary and toadyish figure. Most of these figures are seen in *Hwanghwazipchaun* fourteenth. In these poems, as accompanying

* 밀양대학교 강사

and attending on them is a public service, and takes precedence of other private concerns, and thus, a ceremonial rhyme-borrowing becomes the prime concern rather than emotion and feeling's flow. Naturally, the poetic content becomes from a eulogy for envoys to a ceremonial Ming-in-esteem in a party, and a reverential farewell, and these poems are composed within a toadyish figure.

His consciousness in Yuheozi is free from a formal frame of a ceremonial rhyme-borrowing, in view of poems making our own scenery and the remains of historic interest as an subject matter. It can be said that the quality of his consciousness is taken a glance of through historical facts in the remains of historic interest and reverence of consciousness which the deceased tries to realize. Such consciousness is seen in *Hwanghwazipchaun* nineteenth mainly. As these poems are written by his own poetic genius after his public duty as a receiver, and free from writing formal poem, the realization of such consciousness can be possible.

In the inclination of unworldliness and a Taoist hermit free from worldly cares, it is different aspect from actual problem of the poet and unworldliness and orientation for the world of Taoist hermit in the aspect of consciousness. Such aspect is made on the basis of the realistic circumstances, toadyish diplomatic relations. Therefore, the feature of the world of a Taoist hermit enforce a complimentary aspect to heighten the envoys. However, in the feature of the world of a Taoist hermit in *Hwanghwazipchaun* nineteenth, the beautiful scenery is described verisimilarly with a tower and summerhouse for background, and naturally, it accompanies a natural flow of feeling and emotion.

I. 序 論

중국에서는 외교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는데 이들 사신을 詔使·天使라 칭하였다. 이들은 詔書나 勅諭를 받고 오기 때문에 사대외교라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소홀히 접대할 수 없는 것이다. 詔使들의 來朝는 단순히 정치·외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외교라는 부분까지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와의 수창은 문학적 자존심을 걸고 담판하는 또 다른 외교인 것이다. 따라서 사신을 배중하며 應口輒對하기 위해 조선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를 선별하여 명 사신과 수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文名들은 한결같이 명 사신들과 수창하여 시를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채로운 문학적 교유의 집적물이 바로 『황화집』인 것이다.

지봉도 조사들과의 수창을 통해 두 권의 「황화집차운」을 엮었다. 『지봉집』권14의 「황화집차운」은 지봉의 나이 47세 때인 1609년 홍양 목사로 재임시에 제술관으로 부름을 받아 책봉사 劉用을 접대하게 되면서 그들과 차운한 시들로 49제 60수가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사신 黃洪憲과 王敬民¹⁾의 시에 차운한 것이 32제 43수가 있고 朱之蕃과 梁有年²⁾에게 對韻한 시가 17편이 있다.

그는 「황화집차운」발문에서 “옛 사람들이 화운하는 것을 시인의 큰 어려움으로 여겼다. 그런 까닭에 차운하는 작품은 성당 때 보지 못했다. 내가 시에 있어서 결코 성당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고인의 옳은 경계를 어겼으니 어찌 작자들의 비웃음을 면하겠는가.”³⁾라 하여 성당 때

1) 黃洪憲과 王敬民은 1536년 황태자 탄생을 반포하는 사신으로 왔으며, 1582년에 사신으로 다시 동래하였다.

2) 1606년 翰林學士 朱之蕃, 給事 梁有年이 황태손의 탄생을 반포하기 위해 사신으로 왔다.

3) 권14, “夫古人以和韻爲詩家大魔障 故次韻之作 不見於盛唐之世 不佞于詩 萬不及盛唐 而犯古人之明戒 烏得免作者之所笑也哉”

에도 볼 수 없었던 차운시를 능력도 없고 고인들의 경계까지 어겨가면 서까지 제술관이라는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하였다.

권19 「황화집차운」은 서발이 전혀 없어 언제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문집의 순서로 볼 때 권18 「승평록」(1616.9-1619.3) 이후로 본다면 1619년 3월 이후의 작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집은 권14와 달리 應口輒對한 것 같지 않다. 모두 38수로 이루어졌는데 20수까지가 오언절구이고 나머지는 칠언절구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龔用卿·吳希孟⁴⁾의 시에 차운했다고 한 오언절구 20수는 평양 지방의 승경이나 유적지를 제목으로 하여 일반 황화집에 차운한 시들이 가지고 있는 आय적·송축적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물경을 통한 仙味와 歷史意識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25에서 30수까지의 칠언절구시는 董越·王敞의 시를 차운하였고, 31에서 38수까지는 姜日廣·王夢尹의 시를 차운하였다. 칠언절구 시는 권14 「황화집차운」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작시 의도가 다른 두 권의 「황화집차운」을 통해서 지봉의 의식적 면모가 어떻게 대별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儀禮的인 次韻에 따른 尊卑

권14 「皇華集次韻」의 발문에서도 밝혔듯이 지봉은 차운시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특히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作詩된다면 성정의 자연스러운 유로는 있을 수 없기에 지봉은 극히 피하고자 했던 詩作이다. 그러나 公務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4) 龔用卿과 吳希孟은 1537년 사신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다가 귀국 후 『使朝鮮錄』를 지어 수창에 대비해 예비창작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었다. 여기에는 사행과 관련된 자세한 예법과 의주에서 한양에 이르는 館과 驛, 산천의 경계, 명승지, 누정, 조선의 관원명, 지역의 유래나 전설 등이 망라되었다. 龔用卿 吳希孟, 『使朝鮮錄』, 韓國古典刊行會, 1975.

어쩔 수 없이 和韻을 해야 한다. 그러한 동기에서 지어진 시들이기에 두 권의 「황화집차운」은 그 내용에 있어 의례적 차운시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례적 차운시의 주된 내용은 좋게 말한다면 頌祝을 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阿諛的이고 事大의인 意像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시상의 전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 낼 수 없는 입장에서는 아유와 사대의 시들은 손님 접대를 위한 하나의 형식적 예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문학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례가 정도를 지나칠 때 아유와 사대로 직결되어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 권의 시집에서 의례적 수창의 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97수의 시 가운데 1/3로 30⁵⁾수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 의례적 수창의 시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개입을 배제하고,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명분과 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事大라는 예로써 접대⁶⁾해야 함을

5) 권14 「皇華集次韻」: 4-5 「次渡鴨綠江」, 8-11 「次泛大洞江六首」, 10-18 「次頌詔紀事」, 11-19 「次渡鴨綠江二首」, 12-21 「次車輦館」, 19-28 「次渡大洞江」, 20-29 「次生陽館」, 24-33 「次宣詔禮成」, 25-35 「次太平館」, 33-44 「次赴義州值雨」, 35-45 「次白峴」, 36-46 「次麻布川」, 47-57 「次碧躋夜發」 권19 「皇華集次韻」: 21 「次義順館」, 23 「次嘉平道中怪石」, 27 「次過安城不入」, 28 「次清川江」, 29 「次雲輿午餉」, 34 「次過鳳山」, 35 「次開城館」, 36 「次頌詔禮成」, 37 「次山雨樓」

6)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면 差備官과 遠接使 일행·평안도 관찰사 등 모든 관원이 성 밖에서 사신을 問候하고, 迎勅禮와 見官禮, 延慰宴을 행했다. 사신이 경유하는 지역에 宣慰使로 하여금 迎慰케 하였으며 도성에서는 勅書를 맞을 의식을 준비한다. 사신이 碧躋에 도착하면 이튿날 임금은 종친과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慕華館에 행차하여 翼善冠과 袞龍袍를 갖추어 입고 칙서와 사신을 준엄한 예의와 절차로 맞았다. 의식이 끝나면 왕은 仁政殿에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 시각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우선 명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 我朝에 이른 것을 시화한 「次渡鴨綠江」부터 보겠다.

4-5. 次渡鴨綠江⁷⁾

塞門天遠夕塵空	변방의 하늘 멀리 진에 낀 저녁에,
使節東來趨朔鴻	사신들 북방의 기러기 쫓아 동으로 왔네.
玉帶高分遙海白	옥대 찬 높은 신분은 먼 바다를 밝히고,
錦袍晴映半江紅	금포의 맑은 비춤은 강 가운데 붉네.
千秋日月開青禁	천년의 세월은 궁문을 열고,
萬里絲綸下紫宮	만리의 조칙은 자궁에서 내려오네.
摠爲文星將聖澤	문성이 열림은 모두가 성군의 은택이요,
前旌瑞氣喜成虹	앞선 깃발의 서기는 좋은 무지개 만드네.

조선은 天都에서 멀어 적막한 변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둠이 내린 변방을 기러기를 쫓아서 사절들이 당도하니 새로운 빛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적막하기만 하던 조선은 옥대 찬 조사들로 인해 멀리 변방의 바다는 환히 비쳐지게 되고 금포 입은 조사들의 淸氣로 인해 압록강 가운데가 붉게 물들여져 無明의 세계가 새로운 광명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명사신들을 紅白의 색조에 비겨 그들의 은택이 東染하여 아조를 젖어들게 하는 것으로, 의례적인 환영의 禮를 넘어 조선에 대한 卑下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질은 아유적 색채를 띠고 있다. 수·함련이 명사신들의 동래에 대한 환영의 예를 드러냈다면, 경·미련은 明朝에 대한 은택을 노래하고 있다. 천 년의 세월을 연 明朝가 만 리 밖의 我朝를 생각하여 천자의 조칙을 받들고 오니 어찌 감

접견하고 茶禮를 행했다. 金德秀,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한국한문학연구』27집.

7) 권14 「皇華集次韻」

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운이 성한 것도 다 성군의 은택이니, 성군의 깃발은 瑞氣를 뿜어 무지개로 我朝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깃발 하나로 빛이 선명한 수무지개를 만들어낸다 했으니 명조에 대한 찬양이 예사롭지는 않은 것이다. 지봉은 처음 조선땅에 발들인 사신들을 위해 阿諛性 짙은 어조로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 비록 번다한 수식을 통해 그들을 송축하지 않았지만 ‘白·紅·靑·紫·虹’과 같은 색상을 통해 색조가 물을 들이듯 성택이 물드는 것으로 비유하여 은택의 東染을 송축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송축이 의례적인 것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봉은 명 사신들을 극진한 예로써 환대했는데 특히 압록강을 건너 我朝에 첫발을 내딛는 명 사신들에 대해서는 그 예가 더욱 극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次渡鴨綠江二首」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선 명 사신들에 대해 지봉은 神都나 天上에서 온 인물들로 비유하고 그들의 문장을 봉황[鸞鷲]처럼 아름답고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을 만한 웅장한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압록강을 건너는 모습을 天河가 그들을 따르고 받드는 형상으로 묘사하고 산천이 그들의 광휘에 채식된다고 하여 그들의 귀함을 받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조선에 첫발을 내딛는 조사들에 대한 칭송이 환영의 예로써는 과하다는 느낌까지 들게 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명 사신들을 대동강 위에서 접대하며 지은 시이다. 「次泛大洞江 六首」는 본래 두 수이나 황화집을 엮을 때 네 수를 첨가한 것이다. 먼저 지은 두 수와 나중에 지은 네 수가 비록 조사를 예로써 대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두 수를 본다.

8) 상계서, 11-19 「次渡鴨綠江二首」“迢迢玉節下神都，馬首清霜引遠途。符彩靑霄騰鸞鷲，文章赤手搏於菟。星槎夜渡遼河潤，劔氣秋連砥柱孤。借問繡衣何許容，分明天上列仙徒。”

8-11 次泛大東江 六首 本二首今添四首⁹⁾

(1)

紫泥封詔濕官黃	자줏빛 인주 적은 조서가 황지를 적시고,
御座爐烟滿袖將	어좌의 화로 연기는 소매에 가득하네.
應是玉皇香案史	응당 옥황상제의 향안에 사관이더니,
偶來蓬島管風光	우연히 봉도에 와서 풍광을 관리하네.

(2)

橫舟江口駐飛黃	강구를 가로지른 배에 비황이 머물러,
共醉華筵見德將	함께 취한 화려한 연회에서 덕장을 보네.
赤壁勝遊千古事	적벽의 멋진 놀이 천년 전의 일이나,
何如今日遡流光	오늘 적벽의 흥취로 돌아감이 어떠한가.

명 사신을 위해 대동강에서 배를 띄워 연회를 베풀 때 쓴 시이다. 압록강을 건너는 조사를 위해서 지은 시와는 사뭇 다른 맛을 풍기고 있다. 天使로 동래에 대한 일방적 崇禮에서 酬酌應對의 禮로 자리를 바꿔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선 시에서 보여준 명조의 은택이나 조사의 풍모가 빚어낸 東染의 찬양에서 벗어나 경물의 완상을 토로한 그들 문장에 대한 칭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승경에 자리한 연회이고 보면 적당한 취기에 이어 아름다운 경물에 따른 흥을 토로할만한데도 흥취의 교류를 통한 詩情은 드러나지 않고 그들 문장에 대한 예찬에만 머물 뿐이어서 조사에 대한 의례적 禮만 보여주고 있다.¹⁰⁾

9) 상계서

10) 임란 전에 파견한 명 사신들은 詞章의 교류라는 문화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名儒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明·淸이 교체되는 이즈음에는 장군들이 그 임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인물들이기에 我朝에 온 사신들은 본연의 임무보다 致富라는 물질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酬唱應對를 통한 作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탓에 시에 담긴 내용도 性情의 流露를 통한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회의 자리에서 적당히 취기는 아름다운 景物과 어울려 흥을 일으키

첫째 수는 황제의 조서와 훈향을 갖고 온 조사에 대한 감사의 뜻과 승경의 유흥을 예고하고 있다. ‘紫泥’와 ‘爐烟’을 품고 동래한 조사를 玉皇의 사관에 비유하여 그들의 존재를 받들고 있다. 이어서 천상계의 조사가 지상계의 蓬島에 이르러서는 선경의 관리자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이는 蓬島인 조선과 천상계인 명조를 통해 수직적 관계인 사대의 예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례적 禮를 이어 풍광의 관리자인 조사를 내세워 다음 시들에서 선경의 유흥을 노래하기 위한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수는 대동강을 적벽에 비유하여 천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 그 때의 遊興을 함께 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1,2구는 조사에 대한 칭송이다. 神馬인 飛黃을 타고 온 조사와 함께 승경의 연회에서 함께 취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酒宴에서 보인 그들의 모습은 德將無醉¹¹⁾로, 절도 있게 마셔서 덕을 잃지 않는 덕장의 면모를 보여준 조사에 대한 칭송인 것이다. 3,4구는 덕장의 유흥에 걸맞는 흥취를 천년 전 적벽의 공간으로 되돌려 청아한 노닐을 권하고 있다. 대동강 위에 띄어 놓은 배에서의 노닐은 소동파와 그 객이 청풍명월하던 당시의 풍모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덕장인 그대들 조사들과 함께 천년 전 적벽의 흥취¹²⁾를 즐겨보자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유흥 공간을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흥취를 드러낼만한 詩作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첨가한 네 수에는 촉물우홍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승경과의 교감을 통한 眞情의 流露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그들 문장에 대한 칭송으로 일관할 뿐이다. 8-13(3)의 3,4구 “江山陡覺生顏色, 爲有文章萬丈光”, 8-14(4)의 1,4구

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전혀 그러한 흥취를 볼 수 없다.

11) 『書經』「酒誥」“文王 誥教小子 有正有事 無彝酒 越庶國飲惟祀 德將無醉”

12) 蘇東坡「前赤壁賦」“桂棹兮蘭槳 擊空明兮泝流光 渺渺兮會懷 望美人兮天一方”

“文彩金閨早縮黃，繡服霓旌滿路光”，8-16(6)의 3.4구 “舟中咳唾皆明月，海嶠如今夜亦光” 등을 통해서 조사들의 빛나는 문장들이 我朝에까지 이어짐을 감탄하고 그 문장들이 한밤에도 아조를 빛나게 하고 있다고 칭송하고 있다. 결국 승경을 앞에 두고서도 흥취의 교유를 통한 시정은 드러나지 않고 지극히 의례적인 禮로 酬酌應對한 것이다. 다음은 누각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차운시를 통해서 그 의례적인 면을 살펴보려 한다.

25-35 次太平樓¹³⁾

東來異氣夜衝星
萬里仙槎此暫停
地拆滄溟朝北極
天廻白嶽作長屏
烟光欲染宮袍紫
山色如逢客眼青
生齒即今皆聖澤
忝諫須爲奏明庭

동쪽으로 온 신이한 기운 밤에 별과 부딪혀,
만리 길 신선의 뗏목이 여기서 잠시 머무네.
대지는 푸른 바다를 갈라 북극에 조알하고,
하늘은 흰 산을 둘러서 긴 병풍 만드네.
안개와 별은 자줏빛 관복을 물들이고,
산 빛과 만난 듯 나그네 눈은 푸르네.
지금의 삶은 모두 성군의 은택이니,
자문함은 마땅히 명나라 조정에 아뢰야 하네.

이 시는 4-5 「次渡鴨綠江」과 같은 시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慕華館에서 왕이 친히 조사를 맞이하고, 太平館에서는 그들 조사를 위해 잔치를 베푼다. 아마 이 시는 그들을 위한 주연에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그들에 대한 은택과 칭송이 아닐 수 없다. 異氣로 대변되는 명 사신이 東來하니 밤하늘의 별과 함께 빛나고, 만리 길을 仙槎타고 이 곳에 이르렀다하여 그들의 존재를 밤하늘의 별과 선인에 비겨 천계의 인물이 지상에 들른 것으로 그들을 존송하고 있다. 이러한 천상적 위치의 부여는 인간의 恭慕를 넘어 산하까지 연모의 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半島의 형세가 북극성을 향해 恭跪하듯 향해있고, 흰 눈이 뒤덮힌 산들은 조사를 호위하듯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고 하

13) 상계서

였다. 이어지는 경물들은 조사를 환대하는 형국으로 烟光과 山色이 조사와 어울려 무뚝고 있으니 그들을 즐거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한 환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환대는 최종적으로 성택으로 이어져 지금의 평온한 삶이 성군의 은택이 아닐 수 없으니 신하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으로 맺고 있다. 이는 事大라는 중세 보편의 질서 속에 종적 외교관계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尊明의 발로는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임란 후의 상황임을 고려할 때 再造之恩으로써 당연한 儀禮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시는 그들을 전별하며 지은 시이다.

32-43 次留別遠接使詩¹⁴⁾

萬里風沙入望平	만리 밖의 모래바람은 멀리 지평에서 들어오는데,
海關晴雪引行旌	산해관의 눈 개니 사신의 행렬 인도하네.
蓬山玉鳥空留跡	봉래산의 옥신 자취 부질없이 남아있고,
銀漢仙槎渺去程	은하수의 신선이 타던 배 아득히 멀어져만 가네.
豕首白知遼野近	북쪽이 희니 요동벌 가까웠음을 알겠고,
鴨頭靑見溟江橫	물빛은 푸르니 패강이 가로질렀음을 알겠네.
人間天上元相迥	인간계와 천상계는 원래 서로 먼 것인데,
無限躋濟悵別情	슬픈 이별의 정은 말발굽을 끝없이 적시네.

별관에 만 리 밖의 모래바람이 불어오니 환도의 기나긴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天使인 그들이기에 하늘도 내리던 눈을 그치게 하여 그들의 행렬을 인도하는 듯하니 그들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머물렀던 봉래엔 그들의 足跡만 남고 仙槎를 타고 아득히 멀어져 가니 이별은 또 다른 아쉬움을 남기게 하고 있다. 이별의 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玉鳥’와 ‘仙槎’란 말들을 빠뜨리지 않고 사용해 그들에 대한 존숭의 표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경·미련은 수·함련을 그대로 잇고 있다. 경련에서는 ‘豕首白’을 통해 눈 내린 북

14) 상계서

방의 景概를 보니 요동과 가까웠음을 말하고, ‘鴨頭靑’을 통해 압록강을 건너 푸른 물빛이 그들 앞에 가로 놓여 있음을 말하여 그들의 행로를 밝히고 있다. 미련은 함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玉鴛’을 ‘天上’으로 대신하여 직설적으로 그들의 尊位를 나타냈으며, 人間과 天上을 대비하여 事大的 尊明思想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별의 애절한 정은 躋滄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니, 그들이 남긴 말발굽 자국에 이별의 눈물이 끝없이 고인다고 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이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의례적 차운이란 이유 때문에 사대적 尊明의 시어들이 나타나 있거나 꺾어진 이별의 정은 의례적 차운을 넘어서고 있다.

다음은 권19 「皇華集次韻」에 나타난 의례적 수창시를 살펴본다. 권19의 「황화집차운」에 나타난 차운을 보면, 1에서 24수까지는 龔用卿과 吳希孟의 시를 차운한 것이고, 25에서 30수까지는 董越과 王徹의 시를 차운했으며, 31에서 38수까지는 姜日廣과 王夢尹의 시를 차운하여 쓴 것이다. 이는 권14에서처럼 명 사신들을 배종하며 차운 응대하여 지은 시가 아니라 접에서 기존의 의례적이고 사대적인 作詩 상황과는 다르게 쓰여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조사에 대한 영접에서도 형식적 禮에만 머물지 않았다.

21 次義順館¹⁵⁾

使節初臨海上城	사절이 바닷가 성에 처음으로 다다르니,
福星光彩照行程	복성의 광채는 사행의 노정을 비추네.
船開鴨綠風生磧	배가 압록강에 드니 바람은 물가에 일고,
馬過龍荒雨洗兵	말이 용만을 지나 쇠한데 비가 병마를 씻네.
和氣襲人同日暖	화한 기운은 백성을 덮어 해처럼 따스고,
威聲先路覺冰清	길잡이의 위엄 있는 소리는 어름처럼 맑네.
居民拭目爭欣觀	백성들은 눈 씻고 흔연히 보기를 다투니,
處處窮村播頌聲	궁곤한 촌락 곳곳마다 송덕의 노래 퍼지네.

15) 권19 「皇華集次韻」

이 시는 명 사신들이 아조에 이른 것을 송축하며 지은 것이다. 그러나 앞서 명 사신들의 동래를 시화한 권14 「次渡鴨綠江」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의 시가 명 사신들의 天上에 비유하여 아유적 면모를 보였다면, 후자는 형식적 의례에서 벗어나 그들의 인간적 풍모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그 시작도 천상에서 하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文德를 갖춘 인간으로서 我朝의 방문인 것이다. 따라서 천상계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절단으로서 그들의 인간적 면모를 추앙하는 것이다. 아조에 첫 발을 내딛는 조사들을 위해 상서로운 별빛이 그들의 사행길을 밝힌다고 했으니 그들의 존재가 예사롭지 않다. 서광은 단지 그들의 존재가치 외에 상서로운 기운이 아조에 도래함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福星의 호위 아래 배가 압록강에 이르니 薰陶의 바람이 변방에 일고, 말 타고 지나가니 변새는 진애를 씻겨내듯 비를 내린다고 하였다. 이는 그들을 ‘風雨’에 비유하여 변방에서부터 그 풍모에 濕潤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風雨’라는 자연적 형상을 빌려 국지적으로 젖어들게 하였다면 ‘和氣’와 ‘威聲’으로 대변되는 온축된 德人の 모습은 전면적으로 我朝人을 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온누리를 따사로운 별으로 감싸도는 화한 기운으로 아조인을 德化하고 맑고 투명한 수정같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教化하고 있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듯 내외적으로 덕인의 모습을 갖춘 그들이고 보니 백성들은 그들의 德貌을 보고 이에 젖어들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모습이 궁벽한 시골에서 그들에 대한 송덕을 기리는 노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한 것이다. 앞서의 시가 천상을 빌려 단순히 의례적 환영의 뜻을 전했다면 이 시는 그들이 갖춘 인격적 풍모를 들어 要式的 儀禮에 벗어났기에 단순한 의례적 차운시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시상은 다음 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8. 次清川江¹⁶⁾

學邃天人策
才高盡雪蕉
和隨春有脚
威壓海無潮
日下仙舟度
雲中使節搖
祗應江上月
沿路伴征輶

학문이 심오해 천인의 책묘가 있고,
재주가 높으니 눈 속의 파초일세.
화한 기운은 봄을 따라 다리에 있고,
위엄은 바다를 눌러 물결도 일지 않네.
석양엔 신선의 배 건너고,
구름 사이에 사신들 길 오르네.
때마침 강 위에 달이 떠,
연도에 원정 수레와 짝하네.

이 시는 청천강에 이른 조사들의 풍모를 노래하고 있다. 선계를 빌려 조사들을 받들던 형식적 의례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들의 학문적 역량과 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인의 책묘를 드러낼 수 있는 학문적 깊이와 거기에서 우러나는 재주는 囊中之錐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어, 모든 사물을 덮어버린 눈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하고 있는 파초에 비유하고 있다. 함련은 심오한 학문적 역량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들의 德貌를 보여주고 있다. 格物致知的 경지를 거쳐 修身을 통해 新民에 이른 듯한 그들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마치 밝은 덕을 밝히듯 온화한 기운을 갖춘 그들은 떼어놓는 걸음마다 봄기운을 퍼트리고¹⁷⁾, 온화 속에 갈무리 된 위엄은 거친 파도까지 잠재운다고 하여 그들의 인품을 찬양하고 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인간적 흠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련은 그들의 지위를 한층 격상하여 나타내고 있다. 학문적 역량과 덕모를 갖춘 그들을 천상의 인물로 드러내고 仙舟에 몸을 싣고 구름 사이로 날아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미련은 선계적 조사의 모습에서 지상의 조사로 내려오고 있다. 仙舟는 征輶로 바뀌어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달빛을 드리워 조사의 수레와 짝함으로써 천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비록 천계의 모습을 드러내 그들을 받들

16) 상계서

17) 有脚은 唐의 宋璟이 태수가 되어 愛民恤物하여 당시의 사람이 有脚陽春이라 이른 데서 온 말이다. 「開元天寶遺事」

고 있지만 앞서의 의례적 수창에 나타난 도식적 존숭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그들의 인격적인 면모에 대한 접반사의 예를 갖춘 것으로 지봉의 事情이 펴진하게 드러난 것이다.

37. 次山雨樓¹⁸⁾

清遊不必向仙州	청아한 놀이 仙州를 향할 필요 없으니,
四望雲烟坐可收	사방의 구름 연기 앉아서 거둘 수 있네.
鯨蹴遠波天外立	고래는 멀리 물결을 일으키며 하늘 밖에 있고,
鼇擎神島海中浮	자라는 신도를 이고 바다 가운데 떠 있네.
乍聞咳唾眞驚座	언뜻 해타를 들으니 진실로 경이로운 자리여서,
爭仰聲名舊倚樓	다투어 명성을 우러르며 오래 누각에 머무네.
怪底壁間騰異彩	기이하게도 벽 사이 신이한 채색 솟아 오르니,
筆端風雨落銀鈎	붓끝엔 비바람 일더니 일필의 草書가 떨어지네.

이 시는 山雨樓에서 조사들과 연회를 즐기면서 쓴 시이다. 앞의 「차범대동강」이나 「차태평루」에서 보여준 상투적이고 의례적 내용과는 그 의상부터 다르다. 앞의 시는 수창자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再造之恩을 통한 의례적 尊明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그들과의 교류에서 말하는 호방한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조사들을 위해 山雨樓에서 연 연회는 의례적 접대의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흥이 이는 자리이다. 清遊라 할 만큼 俗氣를 씻어낸 淸淨한 만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仙樓여서 따로 仙州를 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배경도 이에 걸맞게 덧보태주고 있는데, 사방으로 펼쳐진 안개와 구름은 환상적 경지임을 보여줌으로써 그 속의 인물 또한 비인간이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비인간의 청유는 다시 선계의 공간으로 들게 하고 있다. 고래가 멀리 물결을 일으키는 天外와 자라가 神島를 이고 있는 海中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그들의 교류가 얼마만큼 속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미련은 선계

18) 상계서

에서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와 그들의 교류를 노래하고 있다. 咳唾成珠라 했으니 그들간에 오고간 一言一句가 진실로 경이로운 말이 아닐 수 없고 眞情이 통한 사이에 서로간의 추앙은 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간에 화답한 시를 적은 紙墨엔 신이한 광채가 일고 붓끝엔 풍우를 일으키는 힘찬 기운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으니 淸遊의 참 맛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30. 次林畔夜雨¹⁹⁾

傍海愁雲濕不飛	바닷가 근심스런 구름 젖어 날지 못하고,
萬山空翠掩西暉	온산 푸른 빛은 석양을 가리었네.
荒城雨暗行人少	황량한 성 비 내려 어두우니 행인은 드물고,
古峽林寒去鳥稀	깊은 골짜기 겨울 숲엔 오가는 새들도 드무네.
遼路鶯花迎玉節	요로엔 앵화가 옥절을 맞이하고,
帝鄉烟月夢金扉	제향엔 안개 낀 달이 금비를 꿈꾸네.
地靈也有傷離意	대지의 신령도 이별할 뜻에 아파하니,
一夜淋浪爲客歸	밤새 비 뿌리고 물결 일어 객을 돌아오게 하네.

조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바닷가 임방역에 다달았다. 그런데 권14 「次留別遠接使詩」에서 보인 전별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의 시가 밝은 분위기에 ‘玉舄’ ‘仙槎’의 시어를 통해 의례적이고 존숭적 전별의 의상을 드러냈는데 반해 위의 시에는 우울한 빛을 드리워 차마 보내기 아쉬운 이별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시상의 전개도 꺾어진 이별의 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사들과의 이별은 경물들조차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석별의 정을 머금은 구름이 그 자리를 지키듯 머물러 있고, 산 가득 푸른빛은 이별의 빛인 석양을 가려 아직은 이별의 시간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愁雲’과 ‘空翠’를 빌려 자연물까지도 이렇게 그들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는데 서로의 情理가 오갔던 사이이고 보면 이별의 정은 차마 형용하기

19) 상계서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별의 심정을 함련의 공허한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황량한 성 어둠 속에 내리는 비와 깊은 골짜기 한기를 품어내는 숲은 지봉 자신의 심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조사들과의 이별이 가져다주는 허허로움과 상실감을 보여주고 있다. 곡진한 이별의 정이 아닐 수 없다. 경련은 보내는 이의 애상과 달리 맞이하는 이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귀로의 길에는 앵도화가 옥절 같은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뻐 맞이하고, 帝鄉엔 그들이 박차고 들어올 금빛 문짝을 안개 속 달빛을 통해 은은히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맞는 이의 기쁨을 통해 보내는 이의 아픔을 배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련에서는 다시 보내는 이의 심정으로 돌리고 있다. 送人의 애절한 情은 대지와 바다도 아는지 비 내리고 물결을 일게 하여 그들의 갈 길을 막게 함으로써 이별의 情恨을 최고점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구절구절 이별의 슬픔이 배어 있어 의례적 전별의 차원을 넘어 애절한 이별의 情이 참[滿]으로써 드러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이상에서 접반사로서 조사와의 응구첩대에 나타난 지봉의 의식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권14 「황화집차운」에 보인 시들은 사신을 배종하며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성정의 유로에 앞서 의례적 수창이 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들의 東來부터 還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事大와 再造之恩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권19 「황화집차운」은 응구첩대에서 지은 것이 아니기에 요식적 의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비록 권19의 시들이 조사들에 대한 존숭의 예가 없을 수 없으나 그 중심에는 조사들이 갖춘 인격적 풍모에 따른 만남과 이별의 뾰족한 정을 드러내고 있어 작시의도에 서부터 차이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遺墟地에서의 歷史認識

詔使와의 수창에 있어 승경이나 유적지를 소재로 한 詩作은 의례적 차원의 應口輒對에 의한 詩作과는 출발에서부터 다른 의식을 가지고 지어졌다. 차운이나 화운을 통한 시는 應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재나 주제면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작시 의도하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의례적 차운에 의한 것이라면 형식적 틀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적지나 고인을 소재로 한 시들은 상대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지어야 하는 제한적 의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식을 주관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적지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시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식이나 고인이 지향했던 의식들의 추앙을 통해 현실의 준거로 삼고자하는 의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두 권의 「황화집차운」에서 유적지를 소재로 지은 시들은 모두 10제 12수²⁰⁾이다. 그런데 두 권의 시집에 나타난 유적지의 인물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14에 작시된 유적지의 인물은 중국 사람인데 반해, 권19에 작시된 유적지의 인물은 우리나라 사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권14의 시집이 조사와의 접빈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권19는 접빈사의 임무를 마친 이후에 지어진 때문이다. 조사와의 應口輒對에서는 사대외교라는 현실적 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응대에 있어서는 그들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사대외교의 공고함을 피력해야만 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 반면 응대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그들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삼을 필요가 없기에 시인의 자유 의지는 자연스레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두 권의 시집에 나타난 유적지의 인물을 통해 지봉이 보인 의식들을 살펴본다.

1. 次謁夷齊廟二首²¹⁾

20) 권14 「황화집차운」: 1 「次謁夷齊廟二首」, 7-9 「次箕子廟二首」, 17-26 「次箕子墓」, 권19 「황화집차운」: 10 「朝天石」, 12 「麒麟窟」, 17 「檀君祠」, 18 「箕子墓」, 19 「箕子祠」, 20 「東明祠」, 38 「次謁孔子廟」

1)

河上彤雲鎖粉牆
古祠衰草日荒荒
綱常百世風猶奮
姓字千年水亦香
歌遠采薇空往事
城餘孤竹幾斜陽
微誠欲薦將何物
一勺清流替酒漿

물위 붉은 구름이 담장을 채색하고,
옛 사당 쇠미한 풀들 날로 거칠어지네.
강상은 백세가 지나도 유풍은 더욱 떨치고,
그 이름 천년이 지나도 또한 향기롭네.
채미가 아득히 멀어 한갓 지난 일이고,
고죽국 남은 성엔 석양이 몇 번이던고.
나의 정성을 바치려니 무엇으로 할까,
난하 맑은 물 한 잔으로 술로 대신하겠네.

2)

祠門松柏翠森森
祠下愁雲接塞陰
烈日並懸千古節
澄波長照二人心
君臣大義西山峻
宇宙高風北海深
堪笑區區偷活輩
身名容易共湮沈

사당 문엔 소나무 잣나무 뺨뺨이 푸르고,
사당 아래 근심스런 구름은 변방의 그늘에 접했네.
천고의 절개는 태양과 같이 빛나고,
맑은 물결은 이제의 충절을 오래토록 비추네.
군신의 대의는 서산처럼 우뚝하고,
우주 같은 높은 풍모는 북해처럼 깊네.
가소롭다 구차히 살아가는 소인배들,
몸과 명예가 쉬 파묻혀 버림이여.

이제의 묘를 둘러 흐르는 난하에 석양이 내리 앉고 하늘의 구름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상하의 붉은 빛은 묘당의 흰 담장에 반사되어 이제의 묘까지 붉은 빛으로 드리우고 있다. 첫 구는 붉은 빛깔로 夷齊廟와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공간적 배경과 석양에 의해 쇠미한 시간적 배경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은 모든 사건들을 기억의 저편으로 몰아버린다. 시간의 흐름이 이제의 묘당을 쇠락하게 했을 지라도 그 속에 깃든 이제의 단심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억의 저편으로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강상을 지킨 절의는 변함없이 우리를 일깨우고 그들을 추모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첫 구의 ‘彤’은 시간적 의미만이 아닌 이제의 丹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1) 권14 「황화집차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온 충절의 薰香을 새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경·미련도 앞의 연과 같은 시상을 띠고 있다. 먼저 시간적 거리를 말하고 있다. 殷이 망하자 수양산에 은거하며 采薇歌를 부르며 지켰던 이제의 절개도 세월의 뒤안길로 밀려났고, 그들이 없는 孤竹國의 城도 슬한 석양에 빛이 아래져 가는 것이다. ‘采薇(歌)’와 ‘孤竹(國)’으로 병치되는 이제의 자취가 과거의 기억으로 멀어져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이제의 충절에 대한 崇慕은 변함없이 지나는 길손이 그 정신을 잇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준비된 술은 없으나 이제의 절의를 길이 전하는 난하의 맑은 물 한 잔으로 흠향하여 그 뜻을 기리는 것이다.

둘째 수도 첫 수와 같이 이제의 節義를 이제묘의 주위 배경과 함께 읊고 있다. 수·함련은 사당 주위의 모습을 통해 이제의 절의를 드러내고 있다. 사당문 주위를 뺨뺨하게 둘러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른빛은 이제의 곧고 변함없는 절의와 기상으로 드러나고, 사당 아래 근심 드리운 구름은 변방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제의 憂國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제의 절의는 변함없는 자연물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이 천고의 절개는 이어져 오고, 그들의 충절을 비추듯 맑은 물결은 쉼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경련도 이제의 절의에 대한 추앙을 보이고 있다. 군신간의 義를 죽음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수양산에서 마친 삶은 그들의 절의를 더욱 우뚝 솟게 하였으며, 失道한 紂를 피해 북해 물가에 살았던 백이²²⁾를 통해 높은 군자적 풍모를 칭송한 것이다. 이처럼 신하로서의 높은 절의와 군자로서의 깊은 풍모에 대한 칭송은 미련에서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 지금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이지를 시사하고 있다. 현실에 빌붙어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소인배들의 모습은 그저 과거의 인물들만이 아니다. 이는 당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제

22) 『孟子』「離婁章句上」“孟子曰 伯夷辟紂 居北海之邊”

에 대한 節義와 風概를 더욱 추앙한 것이며 전범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다음 시는 기자묘를 차운한 시이다.

7-9 次箕子廟二首²³⁾

1)

海外分封示不賓	해외에 따로 봉함은 객이 아님을 보여주고,
八條餘化未全湮	팔조목의 남은 교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네.
故都禾黍空成穗	옛 도읍에 벼와 기장은 부질없이 이삭을 피우고,
遺廟松杉老作鱗	남은 묘당의 소나무 삼나무는 늙어 비늘 이루었네.
義炳君臣天地大	의로써 군신을 밝히니 천지는 장대하고,
心傳疇範日星新	마음으로 홍범구주를 전하니 해와 별도 새롭네.
千年俎豆應無替	천년의 제사 마땅히 바뀐이 없으니,
山有春薇澗有蘋	산에는 봄풀들이, 개울에는 부평초 있네.

2)

亡國如何不我先	나라 망하는데 어찌 내 먼저 하지 못했나,
佯狂被髮計差賢	미친 척 피발하고 광인을 도모했네.
要將外服爲殷土	외직을 맡겨 은나라 삼으니,
却喜東韓是別天	오히려 동한 별천지를 좋아했네.
香火尙新兵火後	향불이 병화 뒤에 오히려 새로운데,
闕宮依舊故宮邊	달힌 궁문은 옛 궁전 가에 그대로이네.
歌殘麥秀聲疑在	애잔한 맥수지탄의 노래인가 의심했더니,
往往悲風響夜泉	가끔 슬픈 바람이 한밤 샘가에 울리는 소리네.

이 시에서는 기자를 통해 중국과 아국과의 관계가 그 역사성에서 분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기자의 절의와 덕모를 이어온 아국임을 말함으로써 자긍심을 보이고 있다.

첫 수의 수련에서는 기자와 아국과의 관계를 통해 아국의 정통성을 언급하고 있다. 은의 멸망 후 기자가 세운 조선은 殷의 제후국이므로 결코 賓國이 아님을 말함으로써 중국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피

23) 상계서

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팔조목의 교화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수련은 조사를 엄두에 두고 지은 것으로 그들과의 鞏固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함련은 역사의 변천을 읊고 있다. 은의 멸망후 기자가 폐허가 된 도읍지에 보리만 부질없이 자란 것을 보고 한탄한 기사를 떠올리며 그가 없는 평양성을 맥수지탄의 감회로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묘당 주위에 자란 소나무와 삼나무가 세월의 흔적인 비늘만 더해지는 것을 보고 세월의 덧없음을 역사의 편린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경련은 다시 기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義로써 군신간의 관계를 맺으니 천하는 굳건해지고 洪範九疇의 가르침으로 교화를 하니 천하는 새로워졌음을 칭송하고 있다. 미련은 이러한 기자의 치적을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흠향하고 있으니 그 덕화의 기림이 산수간의 欣欣해 하는 자연물들도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수도 기자와 아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 먼저 紂의 숙부인 기자가 은의 멸망에 따른 비감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의 東來는 망국자의 한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국과 역사적 동질감을 부여하고 있다. 비록 종속적 관계라는 事大를 드러내지만 東韓을 별천지로 상정한 기사를 통해 아국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미련은 과거의 회역을 통한 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은의 고도가 폐허가 되었듯이 기자의 도읍도 지금은 굳게 닫혀 있어 역사의 윤희를 새삼스레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덕화는 지금도 숭모되어 향불을 사르니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 정신은 더욱 온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련은 기자에 대한 애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밤에 들리는 구슬픈 소리가 麥秀之歌인가 의심했는데 샘가에 울리는 바람소리이다. 기자에 대한 연모가 아직도 남아 샘가에 울리는 悲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연의 소리에 의탁해 화자의 애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보여준 회고시는 조사와의 수장이란 측면 때문에 역사적 인물도 이제와 기자에만 국한되었다. 이는 事大와 再造之恩이라는 당

대의 외교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제를 통한 절의는 단순히 중국 인물에 대한 추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제의 절의는 명과 조선과의 관계 설정의 비유물로 나타나 그들에 대한 사대의 변함없는 절의를 보이겠다는 다분히 외교적 의도까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자를 통한 시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자를 소재로 한 시는 중국과 아국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혀 양국의 유대를 공고히 하자는 의도와 은의 三仁이며 무왕의 스승인 기자가 동방을 德治했음을 상기시켜 輕慢히 대할 수 없는 민족임을 표명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이처럼 위의 시들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시의도가 다른 권 19의 회고시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권19 「황화집차운」에서는 기자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부터 살펴보겠다.

18. 箕子墓²⁴⁾

荒碑字半苔
松栢繞泉臺²⁵⁾
墓下朝周路
遊魂應往來

황폐한 비석에 글자는 태반이 이끼 끼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무덤을 둘렀네.
묘 아래 기자 朝鮮과 周의 길 있으니,
즐거이 혼은 응당 왕래하겠지.

19. 箕子祠²⁶⁾

遺墟麥秀風
江水映左右
客至酌英靈
清波替樽酒

유적에는 기자의 유품이 그대로 있어,
강물이 좌우에서 사당을 비추네.
객이 이르러 영령에게 제주하니,
푸른 물결은 존주를 대신하겠네.

기자묘와 사당을 중심으로 두 편의 시가 실려있다. 특히 권19에 수

24) 권19 「황화집차운」

25) 泉臺 : 노나라 莊公이 쌓았다. 무덤, 저승.

26) 상계서

록된 시 가운데 1에서 20수까지는 평양지방의 승경이나 유적지를 龔用卿·吳希孟을 차운하여 오언절구로 지었다. 그리고 작시연대도 조사를 접빈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과의 관련선상에서 事大나 再造之恩과 관련하여 기사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평양의 勝蹟에 차운했다는 지봉의 작시의도에 따라 묘당의 주위 배경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감개가 시 전반을 이루고 있다.

첫째 시부터 살펴보면, 이끼만이 오랜 시간의 흔적을 반영하듯 비석에 끼어 글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퇴락했다.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묘 주위를 둘러 자란 아름드리 송백에 의해 부활되어 나타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은 인간 존재를 망각하게 하나 그가 지닌 절의와 덕화는 송백처럼 푸르러 만고에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퇴락한 기자묘와 그 주위 배경은 단순히 경물의 묘사만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유희에는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고인의 모습, 특히 그 정신이 내재되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3,4구는 1,2구의 경물 묘사에 이은 기자에 대한 회억이다. 망국의恨을 등지고 東來하여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망국인 은을 계승하고자 했다. 그러나 고국을 그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인정인지라 살아서 갈 수 없었던 조국을 죽은 뒤에 혼이라도 가고자 한 것이다. 묘 아래 난 길은 조선과 은을 잇는 통로로 혼은 즐거이 그 길을 왕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는 기자의 조선과 은의 내왕은 외부적인 제약을 배제하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사대나 재조지은이란 시각에서 본다면 기자 혼의 내왕은 예측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기자는 망국의恨을 안고 동래한 후, 살아서는 다시 갈 수 없었던 고국을 그리워하는 인간적 면모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기자사」는 기자 사당에 들른 객의 감회를 시화하였다. 비록 사당은 퇴락했지만 기자의 遺風은 그대로여서 씁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흐

르고 또 흘러 내려가는 것이다. 기자의 유풍을 생각하며 영령께 술잔을 바치니 푸른 물결은 술로 바뀐다고 하여 기자에 대한 숭모가 일렁이는 푸른 물결로 화해 기자의 유풍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자의 덕화 정치의 유훈을 계승하여 治民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治者의 염원으로 지봉의 務實 意識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상 두 편의 시는 앞선 「次箕子廟二首」와는 작시의도에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시는 기자를 매개체로 하여 역사적으로 중국과 아국과의 상관성을 보여주었고, 한편으로는 기자의 절의와 교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사대를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현실 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반면 위의 시는 외적 요인에서 탈피하였기에 자연스런 성정의 울림이 유허를 통해 애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의식의 일면까지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동명왕의 유적을 시화한 것이다. 동명왕과 관련된 시들은 대개 동명왕이 九梯宮²⁷⁾의 기린굴²⁸⁾ 안에서 기린마를 길러서 타고 조천석²⁹⁾에 올랐다는 전설을 소재로 이루어졌다. 지봉도 동명왕의 유적을 소재로 하여 세 수를 지었다.

10. 朝天石³⁰⁾

仙子問何之 선자는 어디로 갔나 물으니,

27) 상계서, “東明王之宮, 舊在永明寺中”

28) 麒麟窟 : 九梯宮(동명왕의 궁, 예전에 영명사 안에 있었다.) 안 부벽루 아래에 있다. 동명왕이 기린말을 여기서 길렀다 하는데, 뒷사람이 비석을 세워 기념하였다. 세상에 전하되 왕이 기린말을 타고 이 굴에 들어 땅속에서부터 조천석으로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그 말발굽 자국이 아직도 돌 위에 있다. “在九梯宮內浮碧樓下, 東明王養麒麟馬於此, 後人立石誌之, 世傳王乘麒麟馬入此窟, 從地中出朝天石升天, 其馬跡至今在石上”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VI, 민족문화추진회, 1985.2

29) 상계서, “在麒麟窟南”

30) 권19 「황화집차운」

天風吹鶴背	천풍이 학 위로 불어오네.
盤陀石尙存	반타석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缺月疑環珮	이지러진 달 환패인가 의심하네.

20. 東明祠³¹⁾

明王鼎立初	동명왕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發跡自松壤	송양에서 왕업을 일으켰네.
至今古祠存	지금도 옛 동명왕사 남아 있어,
簫鼓歲來享	통소와 북으로 해마다 향사하네.

「朝天石」부터 살펴본다. 1,2구는 동명왕의 자취에 대한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천석에서 하늘을 오르내리며 하늘 政事에 참여했던 동명왕이 어디로 갔나 물으니 이에 응하듯 천풍이 학 위로 불어오고 있다. 마치 천풍을 불어 학을 내려보내니 동명왕은 仙府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3,4구도 마찬가지다. 옛날 조천석을 타고 하늘로 올랐던 동명왕은 가고 없지만 그 흔적은 그대로 있으므로 허황한 얘기만은 아니다. 마치 이를 대변하듯 밤하늘의 이지러진 달이 동명왕의 환패로 나타나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天應은 한낱 전설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天孫의 민족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어져 역사성을 통한 자긍을 보여주고 있다.

「東明祠」에서는 동명왕의 고구려 건국과 아직도 그를 숭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명왕이 북부여로부터 와서 卒本川에 도읍할 때 松讓이 그 나라를 바치고 투항하였다. 松壤은 城川으로 沸流와 松讓의 옛 서울이다. 1,2구는 동명왕의 건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前後朝鮮(檀君,箕子)을 이은 계통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군과 기자, 동명의 사당이 나란히 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를 위해 제사지내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명백이 유구하게 이어져 옴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麒麟窟」³²⁾은 앞의 시에서 보여준 지봉의 역사의식이나 민족적 자긍

31) 상계서

심과는 달리 중세 보편주의에 부합하여 感君恩을 통한 의례적 내용을 담고 있어 논외로 하겠다.

17. 檀君祠³²⁾

厥初啓茲土	처음으로 이 땅을 여시니,
何年來胥宇	이 땅에 오신 게 언제인가.
白岳謾稱神	阿斯達에서 신이라 칭했으니,
玄天是爲祖	하늘이 우리 조상이라.

이 땅의 始祖이신 단군을 통해 天民으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시이다. 1,2구는 환웅의 강림을 말하고 있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 신단수 밑 神市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한 것을 언급하여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임을 자부하고 있다. 3,4구는 단군의 치적을 말하고 있다. 환웅의 아들인 단군 왕검이 白岳山 阿斯達로 도읍을 옮긴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산신이 되었다는 단군의 終迹을 통해 天神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환웅에서 왕검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우리 민족이 選民으로 天孫의 후예임을 밝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시원을 밝혀 민족의식의 고조와 함께 그 정통성에 자부심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2) 상계서. 12 「麒麟窟」“奇祥豈必古, 遺跡說窮濱. 聖皇今御世, 何地不生麟.” 동명왕의 기린마를 차용하여 感君恩을 드러내고 있어 다분히 형식적인 시이다. 麒麟의 출현은 성인의 등장을 암시하는 理想의 동물이다. 동명성왕의 治世 이후에 기린마가 이야기가 되었으니, 聖皇이 다스리는 지금은 응당 기린이 출현하게 마련인데 나오지 않음은 무엇인가 묻고 있다. 이는 당대가 전란 이후 새롭게 맞이한 태평성대의 시절임을 말하여 이 또한 皇恩이 아닐 수 없다는 상투적이고 허례적인 치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상 당시는 후금의 침입으로 시절은 어수선하고 양국의 관계 또한 대외와 실리라는 묘한 입장에 처한 때였다. 그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봉은 이 시에서 칭송을 통하여 현실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 아닌가 한다.

33) 상계서

위의 시들은 평양에 산재한 유적들을 통해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성을 지녔고 문화 민족이었음을 밝혀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민족적 자긍심을 시화할 수 있었던 것은 應口輒對라는 접빈사로서의 역할과 종적외교라는 현실 외교에서 벗어나 성정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意像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족 開創地에 산재한 유적들은 지봉으로 하여금 우리의 역사를 회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민족 자긍심으로 표출되었다.

IV. 脫俗과 遊仙의 意趣

지봉은 두 권의 「황화집차운」을 통해 선계와 탈속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시들이 상당수 있다. 대개 탈속이나 선계의 지향은 현실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탈속이나 선계의 지향은 현실의 곤궁함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상구로써의 역할을 보여주거나, 道家的 神仙思想을 바탕으로 현실초월 의식을 통해 현실 갈등에서 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하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황화집차운」에서 보이는 유선이나 탈속의 의취는 조사와의 차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현실 도피나 초월,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차원과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권의 「황화집차운」을 보면, 선계와 관련된 시어로 이루어진 시들이 거의 전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사대외교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명 사신을 天使로 상정하여 하늘과 연관지어 줌으로써 그들을 높여주려는 현실적 고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아유를 드러내기 위한 선계의 차용에서 벗어나 화자의 탈속이나 선계 지향의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이렇듯 선계를 소재로 한 시들이 화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지향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권의 시집에서 선계를 담아내고 있는 시들은 누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의 누정시가 누정에 올라 주위의 경물을 완상한 후에 그 아름다움의 嗟歎은 꺾어진 경물묘사로 이어지고 또한 가늠 수 없는 흥취는 선계로 이어져 遊仙으로 이루짐을 볼 수 있다.³⁴⁾ 여기서도 선계는 누정이 중심 무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누정시일지라도 작시 상황에 따라 누정시의 성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초월이나 몰아합일의 경지를 드러낸 누정시들은 자연스런 성정이 발동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반면 조사와의 수창에서는 자연스러운 성정의 流露이기에 앞서 수창 대상을 고려한 의도적 詩作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황화집차운」에 나타난 지봉의 유선이나 탈속적 의취의 시들을 수창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두 권의 「황화집차운」에 수록된 유선·탈속적 의취의 시들은 모두 19수로 권14에 15수³⁵⁾, 권19에 4수³⁶⁾가 있다. 유선과 탈속적 의취를 드러낸 시의 비율이 두 권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권14가 조사와 應口輒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권19는 차운에 의해 이루어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사와의 응구첩대는 누정에서 연회를 즐기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누정에 비친 경물들에 대한 완상이 사실적 묘사로만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물의 완상에 이어 완상의 주체가 되는 玩賞者들을 결부시켜 그들의 존재를 부각해

34) 김갑기는 仙味理想詩에서 선경을 동양의 정신적 고향으로 전설의 시적 승화 내지는 자연의 절대미를 仙化하고 거기에 동화하므로 정서적 쾌감을 추구하려 한다고 보았다. 金甲起, 『韓國漢文學, 그 概說과 各論』, 청주대출판부, 1997.

35) 5-6. 「次車輦蟠松」, 9-17. 「次太虛樓」, 13-22. 「次蟠松」, 15-24. 「次百祥樓」, 18-27. 「次練光亭」, 21-30. 「次太虛樓值雪」, 27-38. 「次慶會樓」, 28-39. 「次漢江夕泛」, 35-46. 「次白峴」, 36-47. 「次麻布川」, 37-48. 「次赤峴」, 38-49. 「次三清閣」, 39-50. 「次新院屯」, 40-51. 「次斧山」, 41-52. 「次巖峙川橋」

36) 5. 「乙密臺」, 7. 「淨碧樓」, 8. 「練光亭」, 25. 「次望聖居天磨二山」

야만 하는 것이다. 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9-17. 次太虛樓³⁷⁾

危樓四面對山稜	우뚝 솟은 누각 산능을 마주했으니,
凜烈偏宜酒後凭	의젓하고 준열함이 술취한 후 기댈만 하네.
飛入半空疑汗漫	반공중에 날아드니 자못 아득하고,
坐來三伏失炎蒸	삼복에 와 앉으면 무더위도 잊어버리겠네.
碧簷暎合雲初宿	푸른 처마 어두워지니 구름도 잠들고,
琪樹寒多露漸凝	옥같은 나무 추위가 더하니 이슬은 점차 응결되네.
元是太虛天上客	원래 태허는 천상의 손님이거늘,
偶從清夜此同登	우연히 맑은 밤을 따라 여기에 함께 올랐네.

이 시는 조사와 함께 태허루에 올라 눈에 비친 가시적 세계를 묘사한 후 이를 상상의 공간과 연결하고 완상자의 존재가 그 가운데 있음을 통해 선계와 완상자의 존재를 결합하고 있다. 우뚝하니 솟은 태허루에 오르니 산능선이 완상자의 눈높이와 같이 에워싸고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태허루의 모습이 자못 의젓하면서도 그 우뚝함에 준열함까지 느끼게 한다. 이곳에 올라 주위 경물과 함께 술에 취하고 보니 서로의 어울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높이 솟은 태허루에 앉으니 사방을 둘러싼 산중에 홀로 떠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산으로 둘러싸인 半空의 태허루는 三伏에도 더위를 느낄 수 없을 듯하다하여 태허루 주위의 경물과 태허루가 가지는 공간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어느새 사위에 어둠이 깔리니 푸른빛의 누각 처마도 어두워지고 구름도 잠자는 듯 멈추고 있다. 주위의 아름다운 나무들에 맺힌 이슬들은 추위와 더해져 마치 옥구슬을 달아놓은 듯 응결되고 있다. 琪樹는 원래 옥같이 아름다운 나무인데 여기에 이슬의 응결로 진짜 옥을 달게 하였으니 靜寂 속에 仙味를 보태고 있다. 이즈음에서 인간계는 천계로 이어지고 있다. 하늘이며 우주의 大元氣인 태허는 천계이다. 어느새 태허루의 주

37) 권14 「황화집차운」

위는 천계의 공간으로 변화되어 이곳에 노니는 객들은 천계인으로 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천계의 공간을 끌어들임으로써 시인이 천인과 동일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연히 맑은 밤에 이끌리어 여기까지 함께 왔다고 하여 천인과의 동격화를 배제하고 있다. 유선시나 선미를 담고 있는 시에서 보이는 자아와 선인의 동격화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觸物에 이은 陳情의 표출이라는 개인적 작시에 앞서 應口의 대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허루를 둘러싼 주위의 물상들을 통해 자연미를 仙化하고 그 속에서 仙人의 意趣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27-38. 次慶會樓³⁸⁾

碧瓦朱甍壓澗阿	푸른 기와 붉은 용마루가 계곡과 언덕을 제압하니,
此中端合列仙過	이 가운데를 응당 여러 신선이 방문하겠네.
屏間冷影開雲母	병풍 사이 찬 그림자 운모를 열어제치고,
池上淸光待月娥	연못 위 맑은 빛은 달 속의 항아를 기다리네.
三島烟霞雙眼迴	자욱한 안개 사이 세 섬은 두 눈에 다가오고,
一樽賓主兩情多	손과의 한 잔 술에 서로의 정은 더해 가네.
當筵不盡留歡意	술자리 끝나지 않아 기쁜 정 그대로 인데,
體唱驪駒白玉詞	백옥같이 아름다운 이별의 노래 부르네.

이 시는 仙味를 통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수련은 경회루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푸른 기와와 붉은 용마루로 만들어진 경회루의 외용이 주위의 계곡과 능선을 제압할 정도로 빼어나다. 계곡과 능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회루의 단아함은 신선들을 불러 모으기 적합하니 경회루를 둘러싼 자연미는 곧 선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병풍을 친 듯 겹겹의 산들이 이어져 비추는 그림자들은 구름의 파편들 사이로 비치는 달빛 그림자로冷을 통해 촉각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冷’은 ‘淸’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 연못 위의 명월은 淸

38) 상계서

澄無垢한 공간으로 만들어 마치 향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수·합련의 仙味的 공간은 경·미련의 人情으로 바뀌어 仙境 속에 이별을 드러냄으로써 이별의 정한을 더욱 사무치게 하고 있다. 경회루에 올라 보니 안개 자욱한 연못 사이로 섬 세 개가 눈에 들어온다고 했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경회루를 둘러 만든 못에는 두 개의 섬만 있다.³⁹⁾ 화자가 三島라 한 것은 지금의 이곳을 三神山(蓬萊, 方丈, 瀛州)에 비유하고자 한 뜻으로 볼 수 있다. 마치 선계에서 머물며 한 잔 술에 서로의 정을 나누는 선인의 모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온 이별은 다시 현실의 세계를 자각케 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연회에서 기쁜 정은 이별의 정으로 바뀌어 앞선 이별을 예감하며 惜情으로 맺고 있다. 선경을 통한 선미의 몰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현실로 마감하고 있다. 이러한 시상 전개는 18-27 「次練光亭」⁴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위의 시들은 가시적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인 선계로의 이입은 이루어지나 합일화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에는 가시적 세계로의 반전이나 人情으로 회귀하고 있어 개인적 의취를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선경을 이끌어내 마치 그들 존재를 선경 속의 선인으로 전화함으로써 그들 존재를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시들에서 나타난 선계는 수창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선계로의 진입이기에 物我的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들은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8-39. 次漢江夕泛⁴¹⁾

39)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I, “慶會樓在思政殿西, 環樓爲池, 池深廣種芙蓉, 其中有二島”

40) 18-27. 「次練光亭」“織女機頭一匹練, 何年掛向清江開, 風來時作縠紋皺, 水淨却疑銀漢面, 天上神仙駕笙鶴, 醉中豪興超瀛萊, 安期留鳥即此地, 不妨強節重遲徊.”

薄暮移舟遡急湍 烟波浩渺接天端 頻斟竹葉香浮甌 細斫銀鱗雪入盤 遠樹參差圖上色 輕橈蕩漾鏡中寒 清遊後夜應成夢 江月分明照玉欄	어스레 저물녘 급한 여울을 거슬러 배 나가니, 안개 물결이 넓고 아득해 하늘 끝과 맞닿았네. 죽엽주 몇 순배에 죽엽향은 옥잔에 피어나고, 은빛 물고기 가늘게 썬니 눈은 소반에 드네. 멀리 나무는 들쭉날쭉 그림 속의 색깔 되고, 가벼운 노가 물결에 찰랑이니 명월 속에 차네. 청아하게 노닌 후의 밤엔 마땅히 꿈꾸리니, 강위의 달은 분명 옥난간을 비추리라.
--------------------------------------------------------------------------------------	----------------------------------------------------------------------------------------------------------------------------------------------------------------------------------------------------------------------------

사물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저물녘에 급한 여울을 거슬러 나아가간 배가 문득 江中에 이르니 안개 물결은 아득하게 펼쳐져 하늘과 맞닿은 듯이 이어져 있다. 마치 몽환의 세계로 인도하는 느낌이다. ‘薄暮’와 ‘烟波’는 주위 경물의 鮮明性을 제거하여 마치 꿈결 속 세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急湍’은 ‘浩渺’로 이어져 풍경의 흐름이 시인의 정서에까지 변화를 주어 문득 비친 풍경에 시인의 마음까지 하늘과 맞닿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득히 펼쳐진 江上의 풍경을 보며 죽엽주를 기울이니 옥잔에는 은은한 죽엽의 향기가 일고, 안주를 위해 썰어놓은 물고기의 살점은 마치 하얀 눈과 같다. 주위에 펼쳐진 은은한 자연의 배치에 후각과 시각의 맛을 덧붙태 놓음으로써 ‘烟波浩渺’로 대비되는 江中 특유의 정경에 한가한 賞自然의 흥취가 자연스레 드러나고 있다. 경련은 다시 주변의 경물로 나가고 있다. 배 위에서 바라본 강가의 나무들은 들쭉날쭉하여 한결같지 않은데 높고 낮은 나무들은 그 높낮이에 따라 다른 빛깔들을 띠고 있는 것이 마치 명암의 톤(tone)에 따라 제각각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경물은 다시 江上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렁이는 물결에 몸을 맡긴 유객과 그 위로 비치는 명월의 청량한 한기는 賞自然에서 合自然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즉 ‘參差’가 물상의 외형을 완전히 포착한 시어⁴²⁾라면 ‘寒’은 淸絶한 이미지로 볼

41) 상계서

42) 『文心雕龍』 「物色」 「參差」 「沃若」 兩字窮形 並以少總多 情貌無遺矣

수 있다. ‘參差’를 통한 현상의 통괄은 ‘寒’을 통해 시인의 淸絶 심상을 드러내 자연과의 합일된 이미지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는 다시 미련에서 현실초월의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 淸遊는 꿈으로 이어져 천상의 노닐을 이루게 되는데, 강 위에 비친 달이 옥난간을 비춤으로써 지상과 선계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상의 세계가 선계로 이어져 선계로의 합일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詩도 선계과 합일의 경지에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

37-48. 次赤峴⁴³⁾

野濶靑分溪畔柳	넓게 펼친 들을 푸르게 나는 것은 시냇가 버들이고,
林晴紅欄嶺頭花	비 갠 숲의 붉은 물결은 고갯마루의 꽃들이네.
若爲喚起山靈飲	산신령 불러 술 마신다면,
共醉仙杯酌紫霞	신선의 술잔에 자하주를 따라 함께 취하네.

이 시는 붉게 물든 고개[峴]를 묘사한 것이다. 「次白峴」⁴⁴⁾이 白色을 통해 티끌 없는 淸淨의 세계를 노래하여 탈속적 분위기를 자아냈다면 여기에서는 赤色을 통해 선계적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봄풀로 뒤덮힌 들은 푸른빛으로 아득히 펼쳐져 있어 경계를 지을 수 없는데, 시냇가 버들에 이르러서야 겨우 경계를 나눌 수 있어 산하는 푸른빛으로 지천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넓게 펼쳐진 들판의 정점에 赤峴이 눈에 닿으니 무궁화 핀 고갯마루는 비 갠 뒤의 숲의 淸澄함과 어울려 붉은 빛을 더욱 선명하고 맑게 그려내고 있다. 눈 아래 펼쳐진 靑色과 눈 들어 펼쳐진 紅色의 조화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저절로 그려내고 있다. 그림 속의 세계는 더 이상 인간의 세계가 될 수 없다. 결국 그림 속의 인물들은 인간이 아닌 신선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는 것

43) 전계서

44) 권14 「황화집차운」, 35-46. 「次白峴」“界破靑空白練開, 雨師淸路淨無埃. 騷人不省春將暮, 却擬騎驢雪裡來.”

이다. 그래서 산신령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다면 하는 假定이 들어서고 그 가정은 화자와 선인과의 동일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붉은 홍화로 덮은 고갯마루에 자하주를 기울이는 신선의 모습을 통해 온통 붉음으로 변해버린 선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탈속적 내지 유선적 의취들은 권14의 말미에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권14의 전반부에서 의례적인 수창을 통해 일정 부분 詔使들에 대한 제술관으로서의 公的役割을 수행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상대적으로 공적역할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여유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性情을 눈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물에 의탁해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應口輒對라는 공적제약에서 벗어나서 지은 권19에서는 처음부터 평양의 勝蹟을 중심으로 하여 유선적 의취를 담고 있는 시들⁴⁵⁾이 등장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7. 浮碧樓⁴⁶⁾

危樓下無地	높은 누각 아래엔 땅이 없고,
倒浸芙蓉水	연당 물엔 거꾸로 잠겨있네.
仙侶夜相邀	신선들 한밤에 서로 만나서,
笙歌白雲裏	흰 구름 속에 생황을 울리네.

아슬아슬할 만큼 높이 세워진 부벽루는 마치 땅을 딛고 있지 않고 연당 물위에 떠 있는 듯 세워졌고 연당물은 부벽루를 반사하고 있어 상하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蓮은 中正한 길을 걸어가는 군자의 고상한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君子花⁴⁷⁾로 부벽루를 떠받들고 있다. 벌써 俗氣를 제거한 공간을 마련한 셈이다. 俗氣의 제거는 仙界로 이어져

45) 권19 「황화집차운」, 3. 「白銀灘」, 5. 「乙密臺」, 7. 「浮碧樓」, 8. 「練光亭」

46) 권19 「황화집차운」

47) 周濂溪, 「愛蓮說」 “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翫焉”

한밤에 신선들은 서로 부르고 있다. 淸淨한 노닐 속에 올리는 생황은 흰구름에 가려 울리고 있어 다시금 塵世의 단절을 통한 仙遊의 고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5. 次望聖居天磨二山⁴⁸⁾

數點浮空黛色齊	몇 점이 하늘에 떠 검은색 가지런하고,
衆峯奔突眼中低	뭇 봉우리 다투어 나옴은 눈 아래 있네.
穿雲石壁藤爲路	구름 뚫은 석벽에 등나무가 길 되고,
礙日樓臺玉作梯	해 가린 누대에 옥은 사다리 되네.
逸氣欲凌黃鶴背	맑은 기상은 황학을 타 넘으려하고,
仙遊難借赤龍蹄	선유에 붉은 용을 빌리기는 어렵네.
休嫌絕頂孤登賞	정상에 홀로 올라 감상하기 싫어하지 말라,
猶得新詩賁品題	신시를 얻고 보니 제목도 아름답네.

천마산은 송악산 북쪽에 있는데 여러 봉우리가 높이 하늘에 솟아, 멀리 바라보면 푸른 기운이 엉겼기 때문에 天磨라 부른다.⁴⁹⁾ 이 시는 천마산 정상에 올라 발아래 펼쳐진 雲海의 장관을 보면 지은 것이다. 발 아래 사방으로 펼쳐진 구름의 바다를 뚫고 솟은 봉우리들 중에 자신의 視線 위에 있는 봉우리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하고, 시선 아래 운해를 뚫고 올라온 뭇봉우리들은 발 아래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雲海와 어울려 펼쳐진 뭇봉우리들의 조화는 別有天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발이 닿고 보니 별유천지는 인간의 세계이기에 또 다시 선계로 맞닿는 통로를 찾아내고 있다. 자신의 눈높이 위에 솟은 석벽과 누대는 길이 되고 사다리가 되어 선계로 잇는 통로로 전화되는 것이다. 이제 선계의 진입을 마련한 셈이다. 장엄하게 펼쳐진 자연의 조화는 선계를 이루어 여기서 노닐 신선을 기다리고 있다. 어느새 시인은 맑은 기운을 가진 신선이 되어 황학을 타고 노니는 경지

48) 상계서

49)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I

에 이르렀다. 그런데 仙遊에 赤龍을 빌리기는 어렵다 했는데, 이는 董越의 시 “應礙行空蹠蹠蹄”를 통해서 우뚝 솟은 봉우리에 천마의 발굽이 걸릴 것을 염려한 것처럼 赤龍도 하마 이리할까 염려하여 빌리기를 주저한 것이다. 황학을 타고 自由自在하며 노니는 모습을 통해 선계로의 합일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련에서 다시 현실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치 꿈결 속에서 해마다 깬 듯 자연의 조화를 통한 선계의 정감이 시속에서 절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는 仙俗 합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상은 다시 현실의 세계로 넘어오므로써 유선적 의취를 發揚하는 것으로 마감한 것이다.

이상에서 유선적 의취의 시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황화집차운」에서 보여지는 유선적 의취의 시들은 작시의 상황에 따라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권14에서 보여주는 유선적 의취를 담은 시들은 조사와의 수창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계로의 완전한 합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술관이라는 공적 기능의 면모가 시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이 어느 정도 충족된 후반부의 시에서는 觸物陳情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선적 의취를 드러내고 있다. 권19에서 보여준 유선적 의취의 시들은 권14의 작시 상황과는 달라 자유롭게 자신의 성정을 표출할 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계와의 합일화를 이루지 않고 있다. 특히 평양의 승경을 담은 시들은 비록 선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을 뿐, 시인의 선계 합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선계로의 진입을 통해 평양의 勝蹟이 선계에 버금가고 있음을 말함으로써 우리 산수의 아름다움을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선적 의취는 경물을 통한 성정의 표출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V. 小 結

본고는 조사를 영접하면서 그들과 수창한 시들을 엮은 두 권의 「皇華集次韻」에 드러난 지봉의 의식세계를 살펴보았다. 조사와의 수창에서 이루어진 지봉의 의식 양상을 儀禮의 次韻에 담긴 尊明, 遺墟地에서의 歷史認識, 脫俗과 遊仙의 意趣로 나누어 지봉 의식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1) 의례적 차운에서 보이는 시적 특징은 아유적이고 사대적인 의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개 이러한 의상들은 권14의 「황화집차운」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 시집에서는 사신을 배종하며 應口輒對해야 하는 공적인 임무가 우선이기에 자연스러운 성정의 유로에 앞서 의례적 수창이 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내용들이 동래한 사신들에 대한 송축에서부터 출발하여 연회에서 보여지는 의례적 尊明 그리고 이별에 부친 존송적 전별의 의상들로, 이 때의 시들은 사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2) 유허지를 통한 역사의식에서는 우리 나라의 승경이나 유적지를 소재로 한 시작들로 여기에서는 의례적 차운이라는 형식적 틀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유적지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시인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이나 고인이 지향했던 의식들의 추앙을 통해 현실의 잣대로 삼고자하는 시인의 의식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들은 권19의 「황화집차운」에서 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권19 「황화집차운」이 접빈사의 임무를 마친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형식적 차운의 작시상황에서 벗어나 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3) 탈속과 유선의 의취에서는 시인의 현실적 문제나 의식적 측면에 의한 탈속과 선계의 지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탈속과 유선의 의취는 사대외교라는 현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지어졌다. 따라서 선계의 모습은 조사들을 높여주기 위한 아유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권19에서 보여주는 유선과 탈속의 모습은 누정을 배경으로 하여 아름다운 경물을 팝진하게 묘사하고 이어지는 흥취를 선계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런 성정

의 유로를 동반하고 있다.

주제어 : Hwanghwazipchaun(皇華集次韻), reciting poems with Chinese envoys(酬唱詩), ceremonial rhyme-borrowing(儀禮的 次韻), historic interest(歷史認識), unworldliness and a Taoist hermit(脫俗·遊仙)

참고문헌

- 『芝峯集』, 韓國文集叢刊 66
- 『芝峯類說』, 李晔光 著 南晚星 譯. 乙酉文化社, 1994
- 『使朝天錄』, 龔用卿 吳希孟 共著, 韓國古典刊行會, 1975
-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고문간행회, 1985
- 金甲起, 『韓國漢詩文學史論』, 이화문화출판사, 1998
- 金周漢, 『韓國文學批評史論』, 學士院, 1993
- 李敏弘, 『朝鮮中期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大出版部, 1993
- 李鍾殷, 『韓國의 道教文學』, 태학사, 1999
-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道教와 韓國思想』, 亞細亞文化社, 1987
- 金東俊, 「16C 樓亭漢詩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李在元, 「芝峯 李晔光의 詩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강민경, 「李晔光 遊仙詩의 幻想과 超越」, 『韓國漢文學研究』29집, 韓國漢文學會, 2000
- 김덕수, 「조선문사와 명사신의 수창과 그 양상」, 『한국한문학』, 한국한문학회, 2001
- 朴京信, 「지봉집에 나타난 이수광의 시세계」, 『誠信漢文學』6집, 誠信漢文學會, 2000

申太永, 「『皇華集』의 편찬의식 연구」, 『한문학보』5집, 우리한문학회, 2001

嚴慶欽, 「韓國懷古漢詩에 나타난 詩語의 心像」, 『부산한문학회연구』4집, 1989

이혜순, 「『皇華集』수록 明 사신의 使行詩에 보이는 조선인식」, 『한국시가연구』10집, 2001

鄭珉, 「조선전기 遊仙辭賦 연구」, 『한양어문』1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鄭珉, 「壬亂時期 文人知識人層의 明軍交遊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鄭珉, 「16·17세기 唐詩風에 있어서의 낭만성 문제」, 『한국시가연구』5집, 한국시가학회, 1999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